

INSIDE EXHIBITION 2

전시되는 젊음

글 김정현 미술비평가·독립 큐레이터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유명한 무명》 | 6.28 ~ 7.31 | 국제갤러리



《유명한 무명》, K2 전시 전경

‘유명한 무명’이라는 전시 제목은 두 가지로 읽힌다. 기획자 서문에 따르면 진정한 유명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무명, 즉 사라짐의 전략(사라짐에 대한 열망)이라는 화두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인사말로도 보인다. 세대 안에서 또는 세대를 넘어 이미 제법 유명하지만 굳이 작업 했수로 따지자면 (그래아만) 상대적으로 무명이라 할 수 있을 법한 작가들. 보통 ‘유망’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들을 ‘유명’하다 칭한다. 이를 통해 이 전시는 젊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기관 발(發) 젊은 작가 전시의 지루함

《유명한 무명(Wellknown Unknown)》은 《기울어진 각운들》(2013)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주최한 그룹전이다. 2013년에는 김현진이 기획하여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7인을, 올해는 김성원 기획 하에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배리핑크, 오민, 이윤이, EH 7인을 소개했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국공립기관처럼 신생과 중견을 연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대략 30~40대, 이제는 20~40대로 폭이 더 넓어졌다. 젊은 작가들의 활동이라면 지난 2~3년 사이에 특기할 만하게 신생 공간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 사이에도 신진작가 발굴이나 소개를 모토로 한 그룹전은 어김없이 열렸다. 연례행사처럼 보이는 《아트스펙트럼 2016》(삼성미술관 리움)부터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 출신 작가 특별전 《관계적 시간》(아르코미술관)이나 신생 공간이라는 경향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SeMA 블루 2016: 서울 바벨》(서울시립미술관)까지 지난 두 계절만 해도 굵직한 기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기획을 만날 수 있었다.

작가 발굴 또는 소개를 모토로 하는 이런 전시는 공통적으로 작가 리서치에 집중하는 대신 포괄적인 주제를 채택, 즉 구체적인 화두를 피하며, 전시 공간에서 작가 간 교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관람자는 '방해받지 않고' 개별 작가의 작업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기관에서 선정한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이 최근 들어 부쩍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젊은 작가 리서치 전시라는 형식이 한계에 이른 걸까. 실상 발굴보다 인증에 가까운 기획인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인증이 무효해질 정도로 여건이 변한 지도 모른다. 《유명한 무명》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업도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다. 신작 소식이 반가운 작가도 있지만 그 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무난한 작업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여타 젊은 작가 기획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어느새 불가피해져버린 형식적 지루함과 무난함. 이제 이런 전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 작가 리서치 전시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유명한 무명》을 특징지을 수 있을 듯하다. 즉, 이 전시에서는 작가 간 교섭과 연동이 일반적인 주제 전시처럼 선명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여럿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절차 없이 단 한 사람의 기획자가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유망하거나 대표성이 있는 젊은 작가를 골고루 선별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전시에는 작가나 작업의 개별성보다 맞물림이 부각된다.

맞물리는 장면들

전시 공간을 거칠게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눠보려 한다. 시작은 남화연, EH(김경태), 오민의 조각, 사진, 영상이다. 사방으로 과감하게 활짝 퍼진 매끈한 표면의 검은 색과 흰 색 조각이 먼저 눈길을 끈



K1 전시장에 설치된 남화연, EH, 오민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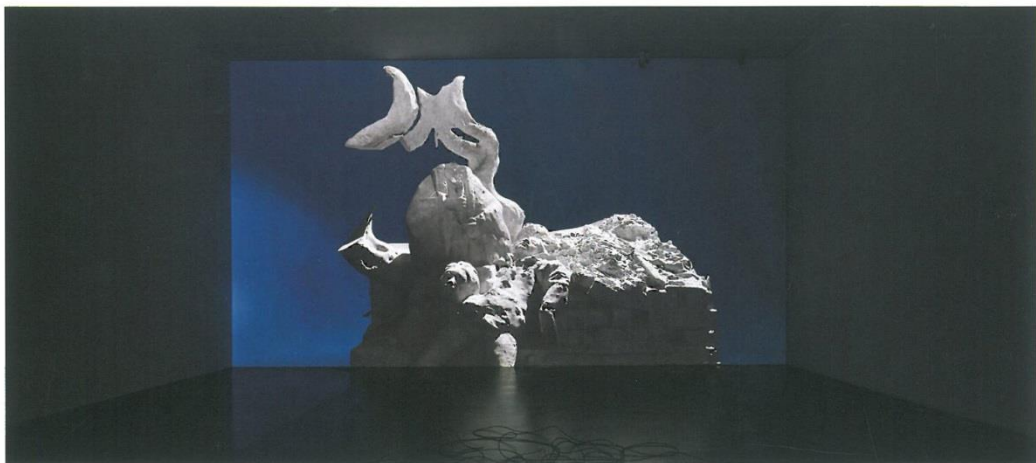
INSIDE EXHIBITION 2

다. 자세히 보니 꽃이다. 식물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남화연 작가의 〈화이트 마돈나〉(2016)와 〈블랙 마돈나〉(2016)는 조각 전공인 작가가 졸업 후 처음 선보이는 조각이라 한다. 퍼포먼스와 비디오라는 주된 매체 대신 조각을 택함으로써 인간의 욕망 또는 “이상한 꽃들의 이상한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작가의 욕망이 투사된 기괴한 식물에 물리적 현전을 부여한다. 남화연은 원전 사고 이후 자연 변형된 후쿠시마 데이지에 착안하여 만든 식물 조각을 “이상한 자연적인 인공물”이라 설명하는데, 이는 EH의 사진에도 적용할 수 있다. 〈Printed Matter HW〉(2016)는 끓는 물의 형태가 반영된 바다 침전물을 평면적으로 포착한다. 추상적인 이미지가 실은 물의 흔적이다. 이렇게 남화연과 EH는 관념적인 추상이나 상상의 조형물을 창작하는 대신 현실 속의 기이한 형태를 관찰하고 수집한다.

오민의 영상 〈Daughter〉(2011)는 두 번째 공간의 〈Banana〉(2011)로 이어진다. 특유의 인공적인 조명과 배경 속에 아무 무늬 없는 정물이 놓여있다. 전자에는 외국인 소녀가 계속해서 사물을 움직이되 배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자에서는 바나나를 움직이는 손을 비추는데, 헤드셋으로 분리한 소리를 들어보니 마치 바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 익살스럽다. 맞은편에 놓인 이윤이의 〈재생 시간〉(2011-2016)에서는 목재 하모니움(harmonium)이 주인공이다. 하모니움이 내는 소리를 들려주는 대신 스튜디오, 컨테이너, 전시장과 레지던스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모니움이 퍼포먼스의 오브제일 뿐만 아니라 퍼포머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모니움이 마치 영

상을 뚫고 나온 것처럼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가벽마저 뚫고 나가 김경태의 〈Model Line〉(2012-2013)이 상영되는 공간으로 연결된다. 모텔의 건물 윤곽선 조명을 찍은 사진은 노출 정도에 의해 3D 구조물처럼 보인다. 실체가 가상 같아 지는데, 마침 한 데 놓인 장식적인 하모니움으로 인해 가상화된 모텔의 실내가 설치로 구현되어 다시 실재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세 번째 장면이 펼쳐지는 K2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영나의 디자인 벽화가 보인다. 〈SET v.4: Exhibition〉(2016)은 이전에 도록에 담았던 디자인을 설치로 확장한 것으로 디자이너 김영나가 정의한 질서를 공간적으로 감각하게 한다. 이 작업은 같은 공간에 배치된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교묘하게 어울리며 시각적 통일성을 자아낸다. 오민이 음악을 치환하여 재구성한 그래픽 다이어그램과 비디오 〈ABA Video Diagram〉(2016)과 〈ABA Video Score〉(2016) 역시 질서와 규칙의 디자인과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베리핑즈의 〈베리키피디아〉(2016)는 사선 방향의 긴 가벽을 경계로 설치되었는데, 이윤이의 하모니움처럼 식물이 벽면을 뚫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가벽을 찢고 자라난 식물의 이미지는 장난스럽고 경쾌하면서도 기묘하다. 김영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기둥을 뚫고 나오거나 선반에 키가 눌리는 식으로 건축적 요소에 반응하는 디자인 단위로서의 식물. 이렇게 도형과 유기물이 동일시되는 상황에 주목할 만하다. 그 기묘한 풍경 속에 상영되고 있는 남화연의 2채널 영상 〈욕망의 식물학〉(2015)에는 무용 연습실을 뱅뱅 도는 남성 무용수 두 명의 모습과 탐스러운 툴립의 이미지가 교차된다. 별의



K2 전시장에 설치된 김희천의 작업



K2 전시장에 설치된 베리핑즈의 작업

춤으로서의 원무, 17세기 네덜란드 투기 파동의 대상인 톨립 카탈로그 이미지, 주식 폭등을 암시하는 텍스트 암송으로 이루어진 작업은 지나치게 명료하고 도식적이다. 특히 거의 언어 기호로 대체 가능한 무용 혹은 퍼포먼스 요소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에 인간사의 내레이터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며 가벽 넘어 베리핑즈의 작업으로 넘어가는 매끄러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은 김희천과 이윤이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2015년 일민미술관 《뉴스킨: 본뜨고 연결하기》로 데뷔한 이래 빠르게 주목받은 김희천의 영상은 공개될 때마다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구작 《Soulseek/Pegging/Air-twerking》(2015)과 함께 신작 《Savior》(2016)를 공개했다. 무수히 많은 영상을 백업하듯 만드는 태도는 여전하다. 《S/P/A》에서 삶은 데이터로 저장된다. 《Savior》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서 삶의 한 가지 축을 고수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현실 열화나 가상 리얼리즘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선언과 같아 보인다. 이윤이의 《한편...자식!》(2011-2016)은 무표정의 대명사인 영화배우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가면 아래, 날아오는 돌맹이를 피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으로 돌맹이를 던지는 위치에 놓이는 16mm 영사기와 관객의 페이스소에 돌을 던진다. 버스터 키튼의 가면 이외의 요소가 잉여로워 보이기 는 하지만 인간적 감정에 대비되는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 태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망주론 벗어나기

기획자 김성원은 작가적 삶의 태도와 작품의 운명이 참여 작가의 다양한 입장 속에 비친다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재함 속에 빛어지도록 연출함으로써 공유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암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와 상상에 반대되는 조건과 관찰이 있고, 온기와 감정을 대체하는 전자파와 규칙이 있다. 가상과 실재를 걱정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낯아버렸으며, 이제 그것을 자연스러운 조건이자 환경으로 수용하고 조작하고 유희하는 게 중요해진다. 여기서 《유명한 무명》이 젊음이나 신생이라는 표현을 피한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기획자가 참여 작가를 소개하며 젊다는 수식어를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의 의의를 세대론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축소하는 세간의 버릇에서 벗어나려는 것일까? 전시에서 보게 되는 것은 과연, 단지 (어떤 종류의) 젊음일까. 《유명한 무명》에서 짐작해볼 만한 화두는 지난 몇 해 동안 젊은 기획자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이미 공유된 것이다. 이 전시가 한 발 더 나아가 있다면 젊음이라는 구태의연한 세대 분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이렇게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전시의 계기와 형식은 해체되는 걸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발굴 선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발굴의 대상과 원칙을 재고해서 유망한 작가 개인이 아니라 현실과 예술에 대한 지지할만한 태도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닐까.■